

# 景觀의 動態性에 관한 연구

姜榮祚\* · 中村良夫\*\* · 齊藤潮\*\*\*

\*東亞大學校 都市造景學部

\*\*京都大學大學院工學研究科

\*\*\*東京工業大學大學院社會理工學研究科

## A Study on Dynamic Character of Landscape

Kang, Young-Jo\* · Nakamura, Yoshio\*\* · Saito, Ushio\*\*\*

\* Dept. of Planning and Landscape, Dong A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Civil Engineering, Kyoto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Social Engineering,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the landscape retaining dynamic character through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patial structure and the landscape. In this study, the landscape was characterized by the image of environment viewed by human being.

Firstly, the landscape was discussed in terms of such three element as the environment viewed by human being, the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the environment and the meaning of image.

Secondly, the dynamic character of the landscape was determined by the comparison between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static elements and the landscape experience through the case study Soshe garden.

In the study found that landscape experience depend on the dynamic viewpoint and human views while the spatial structure is stable and static. This study also found that landscape is an open system which can be diachronically transformed by human value, while spatial structure is a synchronic closed system.

*Key Words : Landscape, Spatial Structure, Diachronic, Synchronic, Dynamic character,*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다시 찾게하는 매력을 지닌 장소 —예를 들면 금강산이나 팔경, 유서 깊은 사찰이나 몇 대에 걸쳐 진존하는 정원이나 정자 또는 광장, 공원, 수변공간, 그리고 일출의 명소, 석양의 명소 등 특이한 경관으로 이름 난 곳—의 성립과 관련된 경관디자인(landscape design)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은 경관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는 대개의 경우 공간구조, 공간구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공간을 구성하는 근원적이고 불변한 원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공식적 분석 태도이다. 공간구조는 시간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상태에서 그 공간을 지배하는 변치않는 원리이므로 이미 그 장소의 성격이 결정되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의식을 지닌 주체에 의하여 그 장소가 새로이 체험되고 창조된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경관디자인 이론으로 공간구조는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경관디자인 수법과 관련하여 공간구조의 역할은 과거의 경관을 복원하거나 재생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쾌적함과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장소를 창조하는 경관디자인의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유효한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우선 본 논문에서 경관이라는 담론이 합의하고 있는 경관의 성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관 관련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관디자인의 연구 분야에서 자명한 실체로 여겼던 경관에 대하여, 경관이라는 담론이 합의하고 있는 그것의 속성이 정태적인 공간구조와는 달리 동태성을 띠고 있음을 관련 문헌과 사례를 통하여 고찰한 것이다. 이 결과는 경관디자인의 방법론으로서 통시적 분석의 유효성을 아울러 시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관이라는 담론에 대한 연구는 경관이라는 개념의 다의성을 논의한 것(황기원,1989), 경관에

관련된 언어의 해석을 통하여 경관 대상의 특질과 체험 내용을 논의한 것(황기원,1995)이 있다. 그러나 경관이라는 담론의 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다. 경관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은 단순히 경관이라는 현상의 발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이라고 하는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사유의 지리적 위치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경관을 체험하는 주체의 가치관의 동태적인 변화가 새로운 경관을 생성한다는 경관생성의 동태성을 논의한 것(吉村, 1997, 1998)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개인적인 경관체험의 변화를 경관생성으로 정의하고 이 체험의 동태적 과정을 살핀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이 정태성을 띠고 있는 공간구조와 관계지움으로 경관이 합의하고 있는 동태성을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

### 2. 방법

경관의 성질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관이란 ‘언제나/이미’ 완결된 그리고 닫혀진 구조인가. 아니면 ‘아직/없다’ 라고 하는 운동과 변환의 과정으로 보는가 라는 물음을 설정하였다. 이 물음은 경관이라는 담론이 공시태(共時態)인가 아니면 통시태(通時態)인가 하는 물음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경관을 정의하는 데에 요구되는 요소들의 특성을 검토하므로써 경관이란 담론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 검토를 통하여 경관은 고정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동태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경관의 성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교 대상으로 공간구조를 제시하였다. 공간구조는 공간의 조직과 관련된 내적 의미 또는 공간의 배열, 위치를 의미한다(안계복,1991:3). 다시 말해서 공간구조는 은둔 사상과 같이 의미적 구조와 공간 또는 평면의 구성에 관련된 지리적 구조가 있다. 이러한 의미는 ‘상-하’, ‘안-밖’, ‘속세-은둔’, ‘음-양’ 과 같이 2항대립적으로 구성되든지 모식도 또는 평면도 등 정태적이며 순수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경관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설정되어 왔다. 물론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것은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

찰(황기원, 1987)이다. 이 논문은 경관이란 개념이 토지로서의 경관(landscape), 경치로서의 경관, 조경으로서의 경관, 토지로서의 경관으로 변환되어 왔다고 논증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지로서의 땅,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경치, 만들어지는 경치, 생활의 장을 각각 경관(landscape)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 경관의 개념이 어느 한 시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환되어 왔음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경관을 “환경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이탈한 관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환경을) 정관할 경우에 형성되는 ‘이미지’”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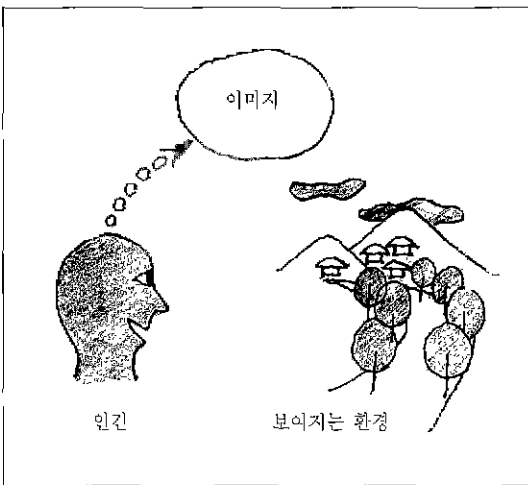


그림 1 경관의 성립요소

이에 따르면 경관이라는 현상이 성립하는 데에는

- (1) 보여지는 환경(물리적 실체)
- (2) 환경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이탈한 관자(인간)
- (3) 관자의 이미지(물리적 실체를 바라다볼 때 형성되는 인간 측의 이미지)

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는 경관이라는 현상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경관현상을 성립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에 함의된 경관의 성질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관의 동태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 II. 경관의 성질

### 1. 보여지는 환경

#### 1) 환경

환경은 주체를 둘러싼 물리적 실체를 일컫는다. 욕스쿨은 동물은 각자의 고유한 환경에 산다고 했다. 이것을 그는 환경세계(Umwelt)라고 불렀다(ユクスキユル, 1973). 퀴직스(아사다, 1995)라고도 불리우는 자연계는 주체와 환경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를 일컫는다.

보여지는 환경이라는 것은 주체가 눈을 뜨자 망막을 때리는 빛에너지와 이를 계기로 변환되는 전기 에너지가 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심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물리적 실체인 환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체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는 주체의 생물적인 반응도 물론이지만 오히려 그가 처해 있는 문화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기호로 발현되는 주의(注意)에 의하여 그 심상은 제 각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여지는 환경은 자연계라고만 말하기 힘들다.

그렇기는 하나 자연계가 환경과 인간이 유기적 관계에 의하여 원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 역시 자연계에도 속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계와 상징계에 함께 속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바라다보는 환경인 경관은 생존의 의미를 읽는(Appleton, 1975) 자연계이며 이것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의미로 가득한 상징계이기도 하다.

#### 2) 구도의 발생

보여지는 환경이라는 말은 환경과 주체가 시각을 매개로 하여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다. 바라다보는 주체의 시점을 중심으로 환경을 구성하는 사물들이 배열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시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중심의 존재와 그곳으로부터 사물이 서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여지는 환경이란 말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주체를 중심으로 동심원상에서 등가적으로 펼쳐져 있다. 주체의 시야와 의식야의 신축과 이동(申樹, 1982:42)에 따라 의식의 중심에 드는 사물과 그렇지 않은 것이 차이의 체계 내에서 관계의 그물로 얽혀져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하나의 시야

내에서 공존하게 되는 것이 보여지는 환경으로서 경관의 특색이다.<sup>2)</sup> 이것을 구도현상이라고도 한다. 경관이 공간이나 장소 또는 환경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다. 시점의 선택에 의하여 주체를 둘러싼 환경구성요소들이 지면을 박차고 일어서서 제각기 자기 주장하는 구도현상이야말로 경관적 가치를 생성하는 계기가 된다(中村, 19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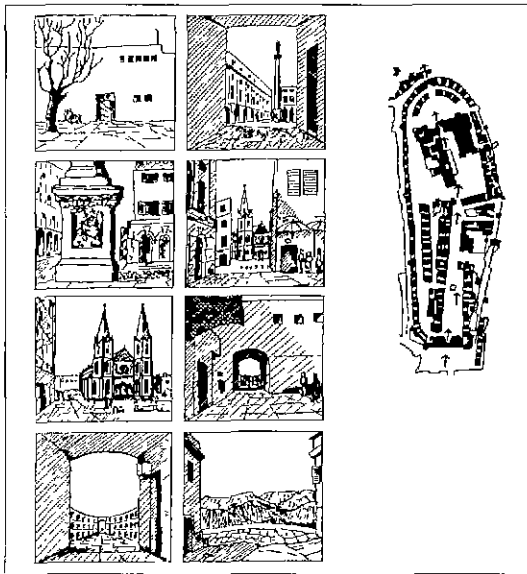


그림 2 시각상의 변화(자료 : G.Cullen, Townscape에서)

이 구도현상은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다.

먼저 사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경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경관이라는 현상은 사물과 사물이 시야와 시계 내에서 구도적 관계로 맺어질 때 비로소 발생한다.

이 구도현상은 사물의 불연속점인 윤곽선에 기인하는 형의 발생을 야기하고, 이러한 윤곽선을 지닌 사물들의 배열에 의하여 생긴, 비어 있는 부분 즉 공간의 체험을 동반한다.

다음으로, 시점과 환경의 시각적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구도현상은 시점의 공간 내 이동에 의하여 구도의 변환을 필연으로 한다.<sup>3)</sup> 그것은 정지된 상태에서는 목 운동으로, 이동하는 상태에서는 몸의 공간 내의 이동 속도와 역시 목 운동으로 그것이 야기된다. 물론 몸의 이동에 의하여 생기는 시야의 부단한 쇄신에 의하여 형성되는 구도현상에는 마찬가지로 의식야의 존재 역

시 구도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보여지는 환경은 시점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존재와 그 인간이 눈을 뜨고 의식의 지향으로 획득되는 세계의 시각상을 일컫는다. 행을 떠난 사물과 그 사물들의 배열에 의하여 생성된 공간을 의식의 지향을 통하여 보는 것이다.

경관의 가치는 이러한 구도현상의 체험으로 야기된다. 구도현상이 계기가 되어 경관적 가치를 획득하고 그것이 언어나 그림 등 표상으로 외재화되면 일정한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현상이 되어 경관가치의 규범이 된다.

## 2. 환경과의 심리적인 탈자

### 1) 매개물

경관체험은 생생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인간의 의식을 지양하도록 하는 매개물을 통하여 본다. 그것을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위프이다.

우리는 자연을 우리의 모국어에 의하여 그어진 선에 따라 분할한다. 우리가 현상의 세계에서 추출하는 카테고리나 유형은 자연 그 자체에서는 꺼집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세계는 만화경적인 인상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조화화한다. 그것은 마음 속에 있는 언어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B. L. Whorf, 1956).<sup>4)</sup>

언어학자 무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어의 사용자는 세계를 그렇게 보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상은 우리가 말하는 말에 의하여 규정된다.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다(ム-ナン, 1970).

한편 세계를 체험하는 데에 개재되는 매개물로서 언어 외에 회화라고 하는 표상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미학자 아랑 로제이다.

서양의 풍경은 본질적으로 15세기의 회화에서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보는 것을 배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의 풍경'이란 없다는 말이다. 풍경은 항상 예술적인 매개를 전제로 한다(아랑 로제, 1995: 83-84)

말하자면 자연의 풍경을 보는 것은 순수한 자연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상한 회화를 매개로 하여 그것을 실경에 투영하여 본다는 것이다.

자연의 숭고한 아름다움에 대해 처음으로 사람들의 눈을 일깨워 준 화가는 바로 클로드 로랭이었다. 그가 죽은 뒤 거의 백년 가까이 되었을 때야 여행객들은 클로드의 기준에 따라서 실제의 경관을 판단해보기 시작했다. 만약 어떤 풍경들이 클로드가 그려 보여준 시각 세계를 상기시키지만 하면 그들은 그 풍경을 아름답다고 찬미하며 거기에 소풍 가서 놀곤 했다(E. H. 고프리치, 1994: 386-387).

고프리치의 이와 같은 지적은 화가의 시선으로 조율된 경관, 즉 화가의 눈을 통해서 경관을 보았다는 것이 된다. 순수한 경험으로서의 자연경관은 예술이라고 하는 의식을 지향하는 매개물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자연이 예술을 모방한다'고 선언한다.

우리가 사물을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온 예술에 의존한다. ...지금 사람들이 안개를 보는 것은 안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인이나 화가들이 그 안개 효과의 신비스런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Oscar Wild, 1891)<sup>59</sup>

사진 역시 회화에 못지 않게 경관 체험의 매개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잔 손탁의 탁월한 견해를 들어보자.

그 누구도 일찍이 사진을 통하여 추악한 것을 발견한 예는 거의 없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사진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있다. ... (중략) 세계를 미화하는 사진기의 역할은 대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세계보다도 사진 쪽이 더 아름다운 것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수잔 손탁, 1992: 107).

그리고 사진이 눈앞에 있는 사물을 금방 미화해버리는 미술과 같은 매개물이라는 점을 벤야민의 말에서 확인하자.

이제 아파트든 쓰레기더미든 간에 그런 것을 사진으로

찍으면 반드시 미화해버리게 되었다. 허천에 놓은 땀이나 진선 공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것들 앞에 서면 사진술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라는 것 이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 ... (중략) 그것은 가난 그 자체까지도 당 세풍의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다름으로써 즐거움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수잔 손탁, 1992: 133).

### 3. 이미지

#### 1) 이미지의 획득

이미지는 심상(心象)으로 번역한다. 그것은 마음의 상이라는 말이다. 경관이 이미지라하는 말은, 체험되는 경관은 세계의 사실적인 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성되는 상이라는 것이다.

마음의 상은 우선 시각기구를 통하여 받아들인다. 망막에 비추어진 외계의 빛 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바뀌면서 뇌내로 전달된다. 망막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대상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다. 이는 안구기구의 광학적 불완전함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대상의 특징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주시점의 불균등한 주사에 의하여 대상의 특징적인 모습을 뇌로 누적적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경관은 경관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요소들과 그 요소의 특징적인 부분을 순차적으로 뇌에 누적하여 마음이 이를 재 조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그 경관을 벗어나더라도 심상으로서 지속하게 된다(齊藤, 1995:19). 이것이 주관에 의하여 받아들이는 외계의 시각상이다.

따라서 심상은 실경의 완전한 복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다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주의(注意)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목전에 동일한 경관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 수만큼의 마음속의 경관이 존재한다는 셈이다. 이것을 개인표상이라고 해두자.

#### 2) 풍경의 집단표상: 주관성을 넘어서

개인의 심상은 그러나 완전히 주관적이지 않다.

사회집단은 공통의 규범과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들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 속에 내재화하여 각각의 행동과 가치 판단에 임묵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규범과 생활양식은 외재화한 표상적 사실로서 파악할 수가 있다. 사회학자인 듀르켄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집단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デュルケム, 1978:33-34).

여기서 말하는 집단표상을 경관현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뒤엎은 것은 나카무라요시오(中村良夫)이며 그는 이것을 풍경의 집단표상이라고 명명한다.

특정의 사회집단 또는 특정의 문화권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대개 일종의 풍경적 이미지가 공유되어 있다. 「도원경(桃源境)」이라고 하면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강 그 풍경적 인상은 떠올릴 수가 있다 …(중략) 이러한 공통의 풍경적 이미지와 그 명칭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은 얽혀 있는 공동체 생활공간에 대하여 상념을 교환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결속된다. 따라서 그것은 특정의 집단 내에서 통하는 말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풍경의 집단표상」이라고 하자

…(중략) 그리고 인간의 풍경 평가에는 이 집단표상이 실경에 투영된다고 하는 성질이 있다(中村, 1982:60).

말하자면 풍경의 집단표상이란 사회적으로 안정된 표상인 것이다. 풍경의 집단표상은 언어에 의한 것으로

전승, 문학, 종교상의 경전, 그리고 시각예술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정원, 명소가 같이 특정의 실경 또는 그것을 모사한 명소가 있다(中村, 1982:61).

경관에 대한 태도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 문화적인 양상을 띠는 이유를 풍경의 집단표상에 의하여 설명했다. 경관의 체험을 이루는 이미지는 개인을 초월한 문화의 문제이다.

### Ⅲ. 경관의 성질로서 동태성

#### 1. 시점 의존

구도현상이 경관적 가치 발생의 근원이라는 점은 우리의 시점이 고공에서와 같이 전체를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지상 또는 지상 부근에 결박되어 있고 거기에서 바라다보는 시각적 체험이라는 데에서 연유한다. 구도현상은 주시점의 간단없는 이동으로 얻어지는 시각상의 부단한 쇄신에 의하여 획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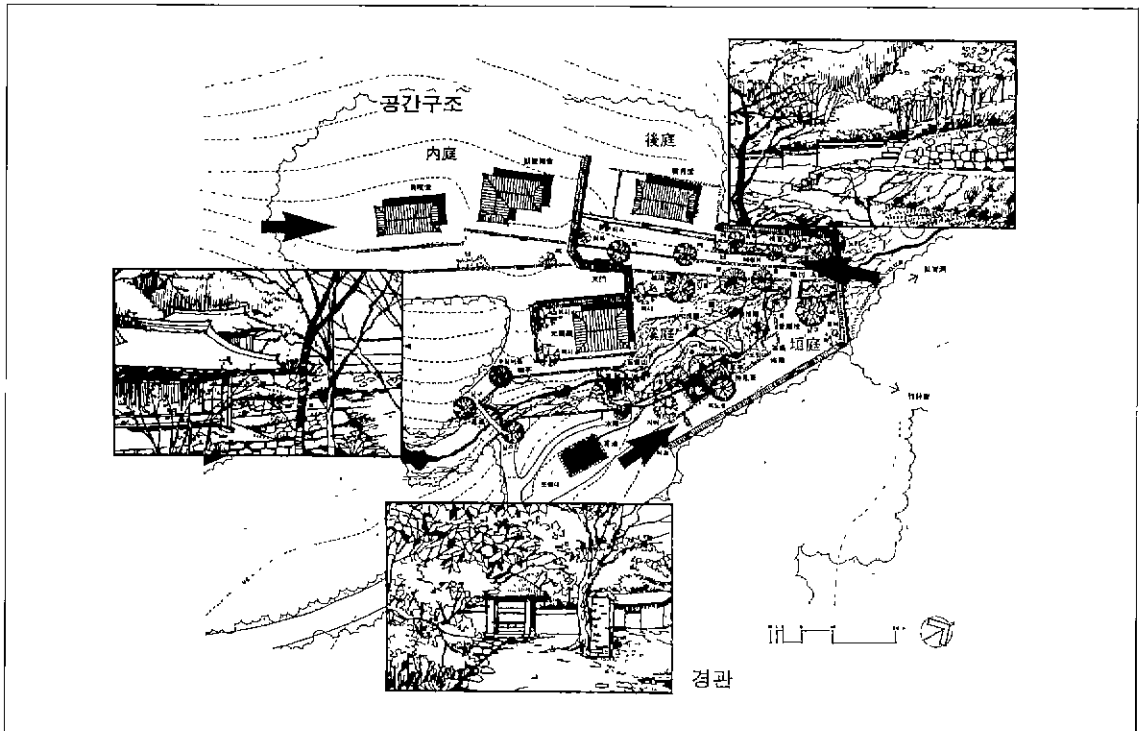


그림 3. 소쇄원의 공간구조(평면적 구성·자료 문화재관리국, 1983)와 경관

그러나 한번 획득한 시각상의 구조는 몸의 이동으로 금방 파괴되어 버리고 새로운 구조의 경관과 접하게 된다. 말하자면 새로운 경관을 체험하는 셈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며 질서를 의미하는 공간구조와 다르다.

구조란 본질적인 가치나 질서를 의미한다. 공간구조는 예를 들어 은둔 사상과 같이 의미적 구조와 공간 또는 평면의 구성에 관련된 지리적 구조가 있다. 이러한 의미는 '상-하', '안-밖', '속세-은둔', '음-양'과 같이 2항대립적으로 구성되든지 모식도 또는 평면도 등 정태적이며 순수한 모델로 구성되어 정원의 불변한 의미나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

경관과 공간구조의 차이를 소쇄원을 사례로 하여 검토한다.

소쇄원을 공간구조적으로 안다는 것은 소쇄원이라고 하는 장소의 심층을 안다는 것이다. 소쇄원의 공간구조는 전원-계원-내원(정동오, 1974), 내원-외원(정기호, 1994), 전정-원정-오정(김봉렬, 1996), 계정-내정-후정-원정-오정-전정(문화재관리국, 1983) 등 평면적 구성으로 본 것, 음-양(문화재관리국, 1983), 은둔(정기호, 1998) 등과 같이 의미적 구조로 파악한 것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소쇄원이라고 하는 장소의 밑바닥에 있는 숨어 있는 조형 원리인 것이다. 이것은 소쇄원이라고 하는 장소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심층에 가라앉아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다.

관찰자의 위치(시점)가 변한다고 해서 소쇄원의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이미/언제'나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쇄원의 공간구조는 변함을 허용하지 않아서 정태적이며 안정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체험하는 소쇄원의 경관은 다음과 같은 시에서 드러난다.

호를 타고 뽕줄기 흘러내리어  
 높낮은 대숲아래 못을 이루네  
 높아서 떨어진 물줄긴 물방아를 돌리는데  
 은갓 물고기가 홀지어 노네  
 (나무 흙대를 통해 흐르는 물/소쇄원 48영 중 제 10영)

정원을 눈앞에 두고 바라다 보이는 것을 시로 읊은 것으로 감상자는 정원 안에서 특정의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 소쇄원의 경관체험은 시점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선은 유동적이다. 호를 타고 뽕줄기를 이루는 물과 못, 그리고 다시 물방아로, 이윽고 물 속의 물고기로 시선은 간단없이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체험하는 경관은 불변하는 정원의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표피적인 경관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관은 시점에 의존한다.

또 경관의 체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초월적인 것. 다시 말해서 본질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한데 누워 푸른 하늘의 달을 보며  
 반듯한 장수바위로 자리 삼고 누우니  
 기운 달이 숲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깊은 밤 잠 못 이루는구나  
 (너럭바위에 누워 달을 보니/소쇄원 48영 중 제13영)

달은 그 자체로는 이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 다만 푸른 하늘에서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이 기울어 나뭇가지에 걸린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 달은 하늘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번에는 나뭇가지와 시각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달이라고 하는 물리학적 실체가 아니라 다른 사물과의 관계의 그물 속에서 달의 의미가 체험되는 것이다. 미적 실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 경관의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정되고 닫힌 체계인 공간구조와는 달리 경관은 불안정하다. 그러나 경관은 언제나 변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열린 체계이다.

## 2. 표층

경관은 시각을 매개로 하여 성립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시대상과의 거리를 취하면서 획득되는 시각상으로 체험된다. 또 대상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경관이라는 현상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탈자(脫者)라고 하자.

세잔느는 그의 친구 카스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농부들이 풍경 또는 나무들을 아는지 의심스럽다. 그래 내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농부가 끄는 마차에 타고 시장에 갔을 때였다. 그는 전혀 아무 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 샹프 빅토와르 산 조차 보지 않는 것이다(Alan Roger, 1987:95)

자연 속에 사는 농부에게는 풍경, 나무, 그리고 산조차 무의미한 대상인 것이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농부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이 인간에게 강력하게 맞서는 상황에서는 자연미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눈앞의 자연을 직접적인 행위의 객체로 삼는 농업종사자들은 주지하고 있듯이 경관에 대해 별다른 감정을 갖지 않는다(아도르노, 1991:142).

자연 뿐 아니라 전원 풍경 역시 그 속에 사는 농자(農者)에게는 별다른 감정을 주지 못한다.

고전 풍경이 규범으로 하는 농촌의 조화미라고 하는 풍경상은 화가, 시인 혹은 공업화 시대의 부르주아 등 탈농자(脫農者)에 의하여 형성된 심미적 기준이다. 그런데 현대인은 공업화시대를 이미 지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탈공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업화된 환경을 맘 홀리면서 일하는 역동적인 장소로는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관하고, 미적 대상으로 바라다보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中村, 1994:4).

나카무라 요시오(中村良夫)는 그 장소에서 벗어난 탈자(脫者)야 말로 그 장소의 아름다움을 바라다 볼 수 있다고 한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 등으로 발전하는 인간의 문명사는 그대로 인류의 경관사이기도 하다. 다만 전시대의 경관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탈자의 시선이다. 그래서 히구치(平口)는 우리가 좋아하는 경관으로 과거의 경관을 들고 있다(平口, 1995).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시간적인 격리점인 과거를 바라다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고자의 시점은 이미 17세기의 풍경화가 클로드 로랭에게서 발견된다.

로랭은 로마의 캄파냐 풍경, 남유럽의 아름다운 색채로 빛나고 과거의 위대한 면모를 여러 모로 상기시켜주는 장엄한 유적들이 있는 로마 근교의 들과 언덕들을 열심히 스케치했다. ... (중략) 그는 본격적으로 완성시킨 그림과 동판화에서는 과거의 꿈과 같은 정경 속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소재들만 선택했다(곰브리치, 1994: 386).

경관은 그 장소에서 벗어난 후 이미 과거가 된 경관을 관조적 태도로 보는 탈자의 시선에 의하여 발견된

다. 그러므로 경관은 그곳에 깃들어 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과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둔 채 표층을 바라다보는 셈이다.

시각의존적인 경관은 대상과의 거리를 전제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즉시각적인 체험이라는 점을 강조해준다. 우리의 몸은 피부를 경계로 하여 내부로 폐쇄되어 있는 것이 아닌 피부라고 하는 몸의 경계를 벗어나 외부로까지 확산하고 있는가.

도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말하자면 손의 연정이며 거의 손의 부속품, 혹은 사용자 자신의 신체 일부이다(ギブソン, 1985:43).

도구는 몸의 연장이다. 몸은 우리의 피부 내측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렇게 보면 경관을 체험할 때 우리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상에 까지 확장해 있는 체험을 한다. 예를 들어 '짜려보다', '훑어보다' 는 시각행위에 촉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있는 산' 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은 이미 피부를 벗어나 저 멀리에 있는 산자락에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 3. 열린 체계

#### 1) 변환

외계화한 집단표상은 이국고 사회집단 내에 전파된다. 그것은 팔경이 중국에서 창작되어 언어로 고착된 후 그 언어와 회화가 중국의 문물과 함께 우리나라로 유통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집단표상으로 팔경을 들어 체계의 변환을 고찰한다.

이미 개인의 경관이미지가 주관성을 넘어서 집단의 문제라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 논의는 개인의 이미지를 사회가 공유했을 때 집단표상이 창조된다는 것이었다. 풍경의 집단표상의 성립에는 이미 어느 특정한 개인의 표상이 사회집단 전체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느 특정의 집단 내에서 형성된 집단표상이 언어 혹은 회화 표상을 통하여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풍경의 유통이라고 하자. 이 풍경의 유통을 생각할 때 적절한 것은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이다. 소상팔경의 기원과 우리나라에 유통된 경위를 안



취준의 「한국회화의 전통」(문예출판사, 1988)에 수록된 '소상팔경도의 기원과 동전'을 근거로 살펴보자.

소상팔경은 중국 호남성 동정호의 남쪽 소수(瀟水)와 상수(湘水)가 만나는 곳의 여덟 가지의 경치를 이른다. 일찍부터 조식(曹植)이나 이백(李白)과 같은 시인들이 소상지역을 소재로 하여 시를 지었지만 이 지역의 풍경을 여덟 가지로 한정하고 시와 그림 등 표상으로 외재화한 것은 북송(北宋) 때이다.

소상팔경은 平沙落雁, 遠浦歸帆, 山市晴嵐, 江天暮雪, 洞庭秋月, 瀟湘夜雨, 烟寺晚鐘, 漁村夕照이다. 소상팔경은 11세기 북송의 송적(宋迪)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미 양식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표 1. 소상팔경과 송도팔경 그리고 한성팔경

瀟湘八景	松都八景	漢城八景
平沙落雁	紫洞尋僧	畿甸山河
遠浦歸帆	靑郊送客	都城宮苑
山市晴嵐	北山烟雨	列署星拱
江天暮雪	西江風雪	諸邦碁布
洞庭秋月	白巖晴雲	東門教場
瀟湘夜雨	黃郊晚照	西江漕泊
烟寺晚鐘	長湍石碧	南渡行人
漁村夕照	朴淵瀑布	北郊牧鳥

중국에서 발명한 소상팔경은 고려 명종 때에 이미 전래되었다. 명종은 문신들에게 소상팔경을 주제로 하여 시를 짓게하고 이광필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이것이 소상팔경을 주제로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제일 오래된 것이다.

이 이후 소상팔경은 고려시대 문인들 사이에서 시제로 널리 애용되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로, 진엽 등 고려 후반기의 대표적 문인들이 소상팔경시를 남기고 있는 것과 송도팔경(松都八景)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말에 이미 우리나라에 널리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송도팔경은 紫洞尋僧, 靑郊送客, 北山烟雨, 西江風雪, 白巖晴雲, 黃郊晚照, 長湍石碧, 朴淵瀑布 등 여덟 장면이다. 이 여덟장면은 소상팔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紫洞尋僧, 北山烟雨, 西江風雪, 黃郊晚照는 소상팔경의 烟寺晚鐘, 瀟湘夜雨, 江天暮雪, 漁村夕照와 동일한 경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팔경의 미의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송도팔경을 제정한 고려 말의 문인들은 아직까지 소상팔경이 제작된 당시의 체

계 속에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신도(한양)팔경이 제정된다. 조선 건국의 공신인 정도전 등이 팔경시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건국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팔경은 장소와 경물의 결합이라고 하는, 고려 말에 우리나라로 전래된 소상팔경의 형식은 답습하고 있으나 선정처와 경물의 내용면에서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내용을 띠고 있다. 畿甸山河, 都城宮苑, 列署星拱, 諸邦碁布, 東門教場, 西江漕泊, 南渡行人, 北郊牧馬와 같이 소상팔경과 같이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돌리지는 않는다. 그것은 畿甸, 都城, 列署, 諸邦 등과 같은 도시적 풍경을 노래하는 대상을 삼고 있는 것이다.

諸邦碁布라는 영계로 정도전이 읊은 시는 다음과 같다.

큰 집들 구름 위에 높이 섰고  
여엿집 땅에 붙어 있다랴네  
아침 저녁으로 연화(烟火) 끊이지 않으니  
일대의 변화한 것도 태평도 하여라

소상팔경이 전래될 때와는 전혀 다른 도시적인 감수성으로 무장된 건국 공신들이 발견한 아름다움이다. 한성팔경을 제정하고 노래한 정도전, 권근, 권우 등은 이때 이미 고려의 이인직과는 다른 감수성으로, 다시 말해서 변환된 체계 속에서 우리의 서울을 바라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집단표상은 우리의 의식야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미적 감수성으로 형성된 집단표상에 자리를 내주며 그에 따라 의식야는 혁신된다. 늘 변환하는 것이 경관의 성질이다.

## 2) 아직/없다

경관은 언제나 누군가에 의하여 발견된다. 그것이 언어나, 회화, 사진, 그 외의 매체로 외재화되어 일정한 사회 집단이 공감하면 풍경의 집단표상으로 안정된다. 그러나 그 집단표상은 '이미/언제나'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경관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이전과는 다른 양식으로 정착되면 경관을 보는 지금과는 다른 시선이 생성되는 셈이다.

“풍경의 발견은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는 선적인 역사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왜곡되고 전도된

시간성 위에 존재한다(카라타니, 1997:28).”라는 말은 풍경을 체험하는 가치 전도의 과정이 선형적이지 아니라 비선형적이며 불연속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풍경을 발견한 화가에게도 풍경에 대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 폴 발레리는 풍경화가 회화사에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풍경이 화가에게 제공하는 흥미는 이와 같이 점차로 변천되어 왔다. 즉 처음에 풍경은 주제의 보조적인 존재로서 주제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요정이라도 살고 있을 것 같은 환상적인 신천지가 표현되었다. 마지막에 찾아온 것이 인상(印象)의 승리로 소재 또는 빛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폴 발레리, 드가, 댄스, 테상에서)<sup>6)</sup>

“풍경이 일단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바로 원래 외부에 존재했던 것처럼 보인다(카라타니, 1997:41).”는 말은 풍경을 바라다보는 새로운 구조속으로 우리 의식이 뛰어들었다는 말이다.

이 구조는 막 새롭게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이미’ 있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 ‘언제나/이미’ 있는 구조는 정태적이지만 경관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면 경관은 ‘아직/없다’.

어느새 산구름이 어두워졌나하고  
창을 여니 동산에 눈이 가득하구나  
뜯은 평평하고 길은 멀리 희니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된 것 같구나  
넓은 뜰에 깔린 눈(平園鋪雪)/소쇄원 48영중 제45영

지금까지 보았던 온갖 나무와 꽃과 물 그리고 석가산 등 정원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각종 사물들이 창을 여는 순간 하얀 눈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평평하게 보이는 상태를 읊은 시이다. 윤곽선에 의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던 경물들이 그 윤곽선을 모조리 감추고 난 후의 모습, 파격적인 모습에 미적인 시선을 던지는 것이 소쇄원 경관체험의 특징이다.

경관은 그런 의미에서 생성적이며 ‘언제나/이미’ 완결된 공간구조와는 달리 ‘아직/없다’이다.

## IV. 결론

이 연구는 지금까지 조경학 분야에서 자명한 실체로 여겼던 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경관이라는 담론이 합의하고 있는 동태적 속성을 공간구조와의 대비를 통하여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관현상을 성립하게 하는 ‘보여지는 환경’, ‘환경과의 심리적인 탈자’, ‘이미지’ 등 세가지 요소가 함의하는 바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보여지는 환경은 자연계와는 달리 의미로 가득찬 상징계이며, 사람에 의하여 보여진다는 것은 시점과 대상과의 시각적 관계를 맺는 것이어서 구도의 발생을 필연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환경과의 심리적인 탈자라는 것은, 경관의 성립에는 환경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 언어, 사진 등 매개물이 개재하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미지는 뇌내 이미지인 개인 표상과 집단이 공유하는 집단표상을 거론하여 경관의 체험이 공동주관성을 띠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공간구조와의 대비를 통하여 경관의 성질이 동태적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공간구조의 체험이 심층적이고 안정적인데 비하여 경관의 체험은 시각을 통한 사물의 표층을 체험하는 것이며, 시점 의존적이라는 점을 소쇄원의 공간구조와 경관체험의 대비를 통하여 논의하였고, 경관 체험은 환경과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사물의 표층을 체험한다는 점을 관련 문헌을 들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간구조가 이미 결정된 닫힌 구조임에 비하여 경관은 가치의 체계가 변환되는 열린 체계라는 점을 소상팔경의 전래와 한양팔경을 시제로 집단표상의 변환을 들어 논의하였다.

이 결과는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의 경관디자인 수법을 탐색하는 데에는 공시적 분석보다는, 경관의 성질이 늘 변환하는 동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축으로 하여 공간구조의 변환을 관찰하는 통시적 분석이 방법론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1 ‘언제나/이미’, ‘아직/없다’는 淺田의 “구조주의가 ‘언제나/이미’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직/아니다’라는 말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된다(아사다, 1995:30-31).”에서 차용하였다

- 주2. 中村良夫 教授가 東京工業大學大学院 講座 景觀工學特論 (1998년 2학기)에서 제기함.
- 주3.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계기적 경험체험이 있다. 이것은 몸의 공간내 이동에 따라 변화되는 시각상의 구도 변화의 연속성이 강조된 표현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경관의 동태성은 경관을 체험하는 주체(집단)의 경관관의 불연속적 빈환과 이에 따라 경관이 불연속적, 무한적으로 생성된다는 경관의 역동성을 이르는 용어이다.
- 주4. Whorf, Benjamin Lee (1956) *Thought, and Reality* New York, The Technology Press and John Wiley & Sons 인용은 E T.Hall(1966)*The Hidden Dimension*,New York: Doubleday & Company: p91에서.
- 주5. 펠린 레더(1991) 예술과 인간가치 김광명 역, 이론과 실천사, 216에서 인용
- 주6. 柄谷行人(1980), *日本近代文學の起源*, 講談社, 박유하 역 (199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p37에서 인용하였다 한국이 번역본(김현 역(1994), 열화당 미술문고105 p113)과 대조하여 보았으나 뜻이 불분명하여 카라타니가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필자 주 이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 해외파견 연구지원(과제명 名所の 通時的分析에 의한 경관디자인 수립의 개발)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의 일부이다

## 인용문헌

- 김봉렬(1996) 소리와 그늘과 시의 정원-소쇄원, 이상건축 9007.
- 문화재관리국(1983) *담양소쇄원 보존 정비 계획 및 설계*.
- 안계복(1991) 한국의 樓亭: 양식상 제 특성 및 계획 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2) 1-11
- 정동오(1973) 양산보의 소쇄원에 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2(1)
- 정기호(1994) 소쇄원의 경관과 건축, 월간 건축과 환경6월호
- 정기호,김봉원,이원아(1998) *긴 담에 걸린 노래*, 서울·테림출판사.
- 황기원(1987)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 55-68
- 황기원(1995) '景'과 관련 슬어의 개념에 관한 고찰-관련 한자어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22(4)· 23-36
- 淺田彰(1983) *構造と力* 東京 勁草書房. 이정우 역(1995)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새길
- アラン ロジェ(1995) *環境と風景*, 三宅京子 譯, SD9504
- 柄谷行人(1980) *日本近代文學の起源*, 講談社, 박유하 역 (199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서울 민음사
- 齊藤 潮(1995) *イメージとコトバの景觀論*, 都市計劃 196 19-23
- 中村良夫(1982) *風景學入門* 東京:中央公論社
- 中村良夫(1984) *大地の低視點景觀像の特質について*, 日本土木學會論文集 1, 1-10
- 中村良夫(1995) *ランドスケープ:その軌跡と展望*, 土と土質 34(1) 1-5
- 平口忠彦(1993) *日本の景觀*, 東京: 筑摩書房.
- 吉村晶子, アンドレア ヤニッキ-, 橋本健一, 中村良夫 (1997) *おくのほそ道* における風景の動態的生成手法 *ランドスケープ研究* 60(5), 567-572.
- 吉村晶子(1998) 「東關紀行」の分析を通じた動態的風景記述モデルの構築 *ランドスケープ研究* 61(5), 675-680.
- ムーナン,G(1970) *言語學とは何か* 福井 芳男, 伊藤 晃 譯 東京 大修館書店
- Alain Roge:(1987) *Land and Landscapes Archetypes and Patterns*
- Appleton, Jay(1975) *The Experience of Landscape* John Wiley & Sons.
- Daukheim, E (1895) *Les Regles de la Methode Sociologique* 富島 商 譯(1978) *社會學的方法の規準* 東京 岩波文庫
- E T Hall(1966)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Doubleday & Company
- E H Gombrich *The Story of Art*, 최민 역(1994) *서양 미술사*, 서울, 열화당.
- Jacob von Uexkull Georg Kriszat, *Steitzuge Durch die Umweilen von Tieren und Menschen Bedeutungslehre* 日高敏隆, 野田保之 譯(1973) *生物から見た世界*, 東京 思案社
- J J 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古崎敬,古崎愛子 譯(1985) *生態學的視覚論* 東京 サイエンス社.
- Melvin Rador, Bertram Jossop *Art & Human Value*, New Jersey Prencite-Hall, 김광명 역(1991) *예술과 인간 가치*, 서울 이론과 실천사
- Theodor W Ardorno *Athetische Theorie*, 방대원 역 (1991) *미적이론*, 서울, 이론과 실천사.